

2025.1/4분기 미국 GDP 성장률(속보) -0.3%

1. 2025.1/4분기 미국 GDP

- '25.1/4분기 GDP성장률(전기비 연율)은 소비 및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입 증가로 순수출이 줄어들고, 정부지출도 감소하며 전분기(2.4%)에 비해 크게 하락한 -0.3%를 기록(시장예상치 -0.2% 하회)
  - 개인소비('24.4/4 4.0% → '25.1/4 1.8%)는 재화\*(6.2% → 0.5%)소비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3.0% → 2.4%)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성장률 기여도: '24.4/4 2.70%p → '25.1/4 1.21%p>
    - \* 자동차 및 부품(26.9% → -17.7%) 소비가 큰 폭 감소
    - \*\* 헬스케어(32.8% → 28.7%)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거 및 유틸리티(7.1% → 22.2%)는 상승폭 확대
  - 민간투자(-5.6% → 21.9%)는 주택투자(5.5% → 1.3%) 증가폭이 감소하였지만, 설비투자(-8.7% → 22.5%)가 크게 늘어나고 지적재산물 투자(-0.5% → 4.1%)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크게 증가\* <성장률 기여도: -1.03%p → 3.60%p>
    - \* 재고투자의 성장률 기여도: '24.4/4분기 -0.84%p → '25.1/4분기 2.25%p
  - 순수출은 수출(-0.2% → 1.8%)보다 수입(-1.9% → -41.3%)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성장률 하락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성장률 기여도: 0.26%p → -4.83%p>
  - 정부지출(3.1% → -1.4%)은 연방정부지출(4.0% → -5.1%)이 국방비(4.8% → -8.0%)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며 감소 전환 <성장률 기여도: 0.52%p → -0.25%p>

(%, 전기비 연율)

	2022	2023	2024				2025	
	연중	연중	연중	1/4	2/4	3/4	4/4	1/4
GDP	2.5	2.9	2.8	1.6	3.0	3.1	2.4	-0.3
개인소비	3.0	2.5	2.8	1.9	2.8	3.7	4.0	1.8
민간투자	6.0	0.1	4.0	3.6	8.3	0.8	-5.6	21.9
비주택	7.0	6.0	3.6	4.5	3.9	4.0	-3.0	9.8
(구조물)	3.6	10.8	3.5	6.3	0.2	-5.0	2.9	0.4
(설비)	4.4	3.5	3.4	0.3	9.8	10.8	-8.7	22.5
(지식재산생산물)	11.2	5.8	3.9	7.5	0.7	3.1	-0.5	4.1
주택	-8.6	-8.3	4.2	13.7	-2.8	-4.3	5.5	1.3
재고증감 <sup>1)</sup>	0.59	-0.41	0.06	-0.49	1.05	-0.22	-0.84	2.25
순수출 <sup>1)</sup>	-0.42	0.49	-0.37	-0.61	-0.90	-0.43	0.26	-4.83
수출	7.5	2.8	3.3	1.9	1.0	9.6	-0.2	1.8
수입	8.6	-1.2	5.3	6.1	7.6	10.7	-1.9	41.3
정부지출	-1.1	3.9	3.4	1.8	3.1	5.1	3.1	-1.4
GDP 디플레이터	7.1	3.6	2.4	3.0	2.5	1.9	2.3	3.7
근원 PCE상승률	5.4	4.1	2.8	3.7	2.8	2.2	2.6	3.5

주: 1)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p)

자료 : BEA

작성자 : 김좌경 차장

##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시장에서는 1/4분기 GDP성장률이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며 역성장 자체에 큰 의의를 두기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다수

○ 관세 부과 전 선수요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견된 가운데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민간지출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

\* Boeing사 파업이 종료되면서 지난해에서 이연된 설비투자 수요가 발생

\*\* Final sales to private domestic purchasers(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 %): '24.2/4 2.7 → 3/4 3.4 → 4/4 2.9 → 25.1/4 3.0

### <주요 투자은행 코멘트>

- **(Barclays)** 1/4분기 GDP가 지난해 견조한 모습보다 많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1/4분기 성장률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임. 특히 GDP 통계 특성상 재고 및 순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오늘날은 경우에는 발표된 지표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 **(HSBC)** 시장예상치와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순수출 부진이 높은 재고수준으로 일부 상쇄되는 모습. 관세부과에 대비한 제약 및 컴퓨터 관련 부품들의 선수요가 수입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음.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입물량 감소가 성장률 수치를 높일 가능성
- **(Citi)** 성장률 수치는 순수출 적자폭이 재고투자와 국내 최종판매로 일부 상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사는 1분기의 추세가 향후 반전될 것으로 예상. 수입감소가 GDP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재고는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설비투자는 선수요로 인해 큰 폭 상승하여 향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MS)** 성장률 자체는 감소하였지만 주요 동인이 관세 부과 전 수입물량 선수요였다는 점과 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가 24.4/4분기보다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국내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평가. 다만 트럼프 정책의 영향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전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
- **(JPM)** 수입물량 선수요가 크게 나타나며 역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양호하고 국내 최종판매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냄. 2/4분기에는 반대로 수입감소를 통해 성장률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사는 2/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함
- **(UBS)** 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이지만 국내 최종판매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당사의 -1.0%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옴. 물가상승률에 관련된 노동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ECI (Employment Cost Index)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